



紳士 노릇 어렵다?

인쇄경영인을 만나다 보면 무뎠던 분들이 꽤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대체로 싫은 내색을 잘 안하고 많이 참으면서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신사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이 교과서처럼 사용된 적이 있다.

통상 '紳士'라고 하면 점잖고 예의 바르며 교양 있는 남자를 일컫는 표현인데 영국에 신사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영국 신사'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인용되곤 했다. 인쇄사 사장 중에도 점잖고 예의 바르며 교양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분들이 모두 신사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신사답다'라든가 '신사적'이라는 낱말이 예외에 속하는 표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듯해서 못마땅한 심정이다. 그만큼 오늘날의 한국 남성들, 특히 인쇄인들이 신사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역설적인 상황인지도 모른다.

얼마전 인쇄업계에서 신사로 통하는 어느 사장님이 흥분한 것을 보았다. 도대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틈만 보이면 깎아내리려고 하니 '신사고 뭐고 생활방식을 바꿔야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물론 화김에 나온 소리겠지만 일부 비뚤어진 인쇄업계의 현주소를 보는 듯해서 가슴 아팠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일 인쇄인사이에 비신사적인 행동이 일반화된다면 그 결과는 가히 끔찍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쇄인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지 못한다면 인쇄와 단결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한 술밥을 먹어 온 동업자 관계가 사소한(?) 거래 때문에 사나와진다거나 뒤통수 치기로 상대 거래처를 흔들어 대고 여기에 감정까지 개입되면 주고 받고식 피해만 커질 따름이다.

사실 인쇄사와 오랜 거래처와의 관계는 인쇄물에 대한 '연고권'이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묵시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이를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통째로 무시하는 것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어렵고 힘든 일이 얽히고 설킨 인쇄업계 실정이고 보면 그 어느때보다 대인관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사 노릇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신사적인 마음가짐까지 던져버려서는 안된다.

명문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양심에 비춰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본 틀을 서로 지킬 때에만 발전을 향한 다음 계단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보는 시각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문화의 뿌리를 부동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인쇄인들이 신사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신사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세익·편집주간〉